

전남 경찰서장 2명 조사

경찰청 감찰팀, 금품수수·수의계약 관련 등 여부... 당사자들은 부인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 2명이 최근 경찰청의 감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경찰청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전남지역 모 경찰서 지구대에 조사본부를 설치한 뒤 경찰 관련 비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자는 전남 모지역 경찰서장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팀은 A서장의 경우 근무지역 자치단체의 발주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찰팀은 B서장이 지역 시·군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의계약 증용과 물품 구매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감찰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청은 직무와 관련된 의혹과 개인 비리 부분까지 폭넓게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서장은 “금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근무기간 확인 차원에서 특별감찰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B서장은 “감찰을 벌인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내가)감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두 간부가 감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모른다”면서 “사실 여부에 대한 파악이 끝나야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주언 서구청장 직무정지

검찰 '인사비리' 구속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16일 서구청 공무원의 승진과 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언(61) 광주시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전 청장은 “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급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직무를 정지했다. 광주·전남 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직무가 정지된 것은 전 청장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구청 간부 임모(58)씨를 통해 5급 승진 대상자

인 오모(45)씨가 건넨 현금 3000만원을 비롯 2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 청장은 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당원 1300여명을 모집하는 등 관권선거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지법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달 말께 선고할 예정이다.

전 청장이 오는 9~10월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서구청장은 내년 4월 27일 재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전 청장이 이달 28일내에 자진사퇴를 한다면 7월 28일에 재선거가 열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유엔에 '천안함 서한' 발송
검찰, 참여연대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보수단체들이 수사 의뢰한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 사건을 공안1부에 해당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 원문을 입수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천안함 조사결과가 날조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허위사실의 유포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국가의 외교업무 방해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야간조명 비리 의혹 사표 뒤 잠적 여수시 전 女국장 조사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여수 야간경관 조망사업 비리 의혹을 받고 사표를 낸 뒤 잠적했던 전 여수시청 국장급 간부 김모(여·59)씨가 지난 14일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여수시청 도심개발사업단장(4급)으로 재직할 당시 시가 발주한 야간경관 조망사업과 관련, 경관조명업체인 (주)나이트피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수령한 의혹을 받아 지난 2월부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내사를 받아오다 4월 초 사표를 낸 뒤 잠적해 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연말부터 2009년까지 야간경관 사업을 담당했으며 이 업체에 발주한 공사금액은 7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홍식(59) 전 해남군수는 지난 4월 22일 군이 발주한 26억원 규모의 '야간 경관 조망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준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는 등 조경 관련 3개 업체에서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목포 등 전남지역 4~5개 시·군의 관계자도 경관조망사업 관련 비리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환경미화원 체력 시험 8명을 뽑는 광주시 북구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257명이 응시해 32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6일 오전 북구 문흥동 문화근린공원에서 열린 체력시험 응시자들이 모래가마니(20kg)를 메고 100m달리기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적장애 소녀에 돈 주고 성관계

성범죄 3명 적발

가출한 10대 지적장애인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30대 2명과 강제로 성폭행한 50대가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은 16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조모(38·노동)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중순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16·지적장애 2급)양을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현금 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총 4차례

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은 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양과 친구 정모(16)양 등 10대 소녀 2명에게 돈을 주고 2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김모(33·목포시 상동)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소녀들에게 원물을 구해주고 수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9일 밤 10시경 광주시 서구 관천동 버스터미널 앞을 배회하고 있던 오모(18·지적장애 2급)양에게 다가가 “잠을 재워주고 밥을 사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윤모(50)씨도 최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전남은 오늘 월드컵 열광 도가니

“혼자보긴 아깝다” 단체응원 봇물

‘회식도, 동창회도 월드컵과 함께’

지난 12일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그리스를 2대0으로 꺾으면서 불기 시작한 월드컵 열기가 단체응원으로 번지고 있다. 직장 회식은 물론 동창회까지 월드컵 중계에 맞춰 열면서 17일 아르헨티나전을 앞두고 호프집과 식당은 예약이 폭증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엘리시아 뷔페식당은 월드컵을 위해 전체 300석 중 100석 규모의 홀에 120인치의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정상가격에서 20%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월드컵 응원 이벤트를 열고 있다. 이 뷔페식당은 16일까지 100석 중 60석의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회식자리 동창회서 “대~한민국”
직장마다 승부 맞추기 내기 열풍

예약손님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아르헨티나와 맞붙는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서구 치평동에 있는 400석 규모의 밀러타임 호프집에도 예약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 호프집은 아르헨티나전 당일 경기시간 동안 특정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맥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선착순으로 응원도구를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단체응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예약자들은 대부분 상무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들이다. 이 호프집의 경우 지난주 열린 그리스전에는 경기시작 1시간 전에 손님이 가득 찼다. 호프집 관계자는 “아르헨티나전이 평일에 열리는 만큼 회사에서 퇴근한 직장인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고 17회 동창회원들은 아르헨티나전이 열리는 17일 오후 동창회 시간을 맞춰 회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회원 30명이 참여해 식사를 하고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 해질 19시 49분 / 달돋이 10시 20분 / 달질 23시 27분

붉은 물결 또 다시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20/32℃
목포	구름많음	19/28℃
여수	구름많음	21/28℃
완도	구름많음	18/28℃
구례	구름많음	20/32℃
애남	구름많음	18/29℃
장흥	구름많음	19/29℃
고흥	구름많음	18/31℃
순천	구름많음	20/31℃
영광	구름많음	19/29℃
진도	구름많음	18/29℃
전주	구름많음	20/31℃
남원	구름많음	18/31℃
옥산도	구름많음	17/23℃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21/30	21/27	21/27	21/29	22/29	22/29

야외응원 좋은 날씨

광주·전남 구름 많지만 비는 안 내리

2010 남아공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과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열리는 17일, 광주·전남지역은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지만 야외 응원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가장자리에 들어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고 16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경찰, 음주단속 고민

아르헨전 응원 뒤끝... 일제단속은 자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일까? 월드컵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경찰이 음주단속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 12일 그리스전 승리 이후 월드컵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술’이 빠질 수 없기 때문, 한국과 그리스전이 열린 지난 12일 울산시에서는 응원 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전이 열리는 오늘 등 월드컵 기간 내내 밤에 각

종 모임이 이어지면서 음주가 크게 늘어 취객의 음주운전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월드컵과 관련 일제 음주단속을 별도로 벌이지는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월드컵 경기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를 막고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면 일대 교통이 마비될 것을 예상, 일제 음주단속을 벌이지는 않을 계획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보호시설 나온 청소년들 차량 털이

○광주서부경찰은 16일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나온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승용차를 연체적으로 텀 박모(16)군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지난 14일 새벽 3시경 광주시 서구 화정동 5아파트 근처 골목길에 주차된 조모(여·58)씨의 승용차 문을 두드리고 연 뒤 휴대전화와 동전 1만원 가량을 훔치는 등 이날 하루 동안 6대의 차량에서 휴대폰 2개, 선글라스, 동전 2만 5000원을 훔친 혐의.

○경찰은 “경찰의 한 청소년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박군 등이 지난 14일 광주에 내려온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